

『醫方類聚』가 『東醫寶鑑』 편찬에 미친 영향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팀 안상우

The Influence of 『Eui Bang Yoo Chui』 upon 『Dong Eui Bo Gam』 Publishment

Ahn Sang-woo

To generalize how early-Chosun medical achievements represented by 『Hyang Yak Jib Sung Bang』 and 『Eui Bang Yoo Chui』 influenced the publishment of 『Dong Eui Bo Gam』, and what academic achievements of 『Dong Eui Bo Gam』 are, I have compared the compositions of 『Dong Eui Bo Gam』 to two representative medical literature of early-Chosun era and examined the changes in organizations, and I was able to find deep connections among 『Dong Eui Bo Gam』, 『Hyang Yak Jib Sung Bang』 and 『Eui Bang Yoo Chui』.

서론

『醫方類聚』(1445년)가 나온 지 160여 년만에 편찬된 『東醫寶鑑』은 조선 중기까지의 의학이 집대성된 현전 최고의 한의학서이다. 『동의보감』에는 편찬 당시까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학서가 총망라되어 있으며 이중 조선의 고유 의서로서는 『의방유취』, 『鄉藥集成方』, 『醫林撮要』와 같은 대형 의방서가 歷代醫方¹⁾에 주요 참고문헌으로 올라 있다.

의학 전과를 포괄하는 종합 방서로서의 체제나 규모로 보아 이들 세 가지 의서가

1) 『醫方類聚』, 『鄉藥集成方』(以上 本國祖宗朝命文官醫官撰集), 『醫林撮要』(本國內醫鄭敬先所撰, 楊禮壽校正)

『동의보감』 편찬의 주요 참고서였음에는 이의가 없으나 실제 인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중 『의방유취』가 직접 인용된 곳은 170여 조인데 반하여 『향약집성방』은 단 2조 밖에 검색되지 않는다.²⁾ 또 시기적으로 『동의보감』 편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의림촬요』도 33조 인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³⁾

특히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는 각기 편찬시기만 다를 뿐 왕명에 의해 文官과 醫官이 총동원되어 당시 의학수준을 집결시킨 종합 의서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보감』과 상호 비교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3대 의서의 편집 체계를 대조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의보감』으로 대표되는 조선 중기의학에 있어서의 발전된 면모를 개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의보감』의 편찬 초기에는 허준을 비롯하여 양예수, 김응탁, 이명원, 정예남, 유 의 정작 등이 참여하였으며, 정유재란으로 집필진이 흩어진 이후에 선조가 다시 500여권의 內藏方書를 하사하면서 허준에게 단독 편찬한 것을 명하게 된다.⁴⁾ 『의방유취』는 현재 왜란 중 加藤清正에게 약탈당한 1부만이 일본에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에서는 『동의보감』을 편찬할 때 쓰여진 것 이후로는 역대 의서에 직접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의보감』에 인용된 『의방유취』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두 의서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의방유취』가 후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⁵⁾ 이에 저자는 『동의보감』에 인용된 ‘類聚’ 인용구를 조사하여 각 문별로 집계한 다음 중요도를 평가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서 제시한 3대 의서의 편제비교와 함께 조사된 인용구를 중심으로 분류체계와 의학내용 양 측면에서 고찰한 개괄적인 결과를 연계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방유취』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의학의 성취가 『동의보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동의보감』에서 이룩한 새로운 학술적 성과는 무엇인지를 추찰해 보기로 한다.

2) 『동의보감』 본문에서 『의방유취』는 ‘類聚’로 약칭되어 있다. 『향약집성방』은 약칭 ‘鄉集’으로 검색한 경우, 잡병편 해수문에서 寒嗽의 飴薑元과 痰嗽의 藍漆煎元 단 2조의 처방만 검출된다.

3)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79, 81.

4) “宣宗大王…召太醫(臣)許浚…與儒醫鄭碯、太醫楊禮壽、金應鐸、李命源、鄭禮男等, 設局撰集, 略成肯綮, 值丁酉之亂, 諸醫星散, 事遂寢厥. 後先王又教許浚, 獨爲撰成, 仍出內藏方書五百卷, 以資考據…”(東醫寶鑑序)

5) 저자의 조사에 의하면 『濟衆新編』, 『廣濟秘笈』, 『醫門寶鑑』, 『仁濟志』를 비롯 근세 『方藥合編』, 『醫鑑重磨』에 이르기까지 『의방유취』가 고루 인용되어 있지만 모두 『동의보감』을 통한 재인용으로 파악된다.

본 론

1. 편제상의 변화

먼저 『東醫寶鑑』의 가장 손꼽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편제분류상의 독창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조선 전기의 양대 의서인 『醫方類聚』와 『鄉藥集成方』의 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의방유취』는 전체 91문⁶⁾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五臟으로부터 시작하여 소아 잡병에 이르기까지 각 병증문이 차례로 編次되어 있다. 그러나 내부 구조는 좀 복잡해서 각 문안에 내용별로 論藥(이론+처방), 食治, 禁忌, 鍼灸, 導引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이 안에서 다시 인용서의 해당 내용을 발췌하여 편입시켜 놓은 이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⁷⁾ 이러한 구조는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역대 의방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방대한 분량의 대형 方書를 다수의 인원이 분담하여 처리하기에는 최적의 방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방유취』에는 卷首에 권별로 분할된 總目을 제시하고 세부 목록은 각 문별 첫 권에 소재해 있다. 이것은 『의방유취』가 애초에 편찬 당시부터 문별로 찾아 읽을 수 있도록 안배하였다는 이야기다.

『향약집성방』의 편제는 이보다 훨씬 단순하여 처방편과 본초편으로 양대분되어 있고 처방편은 47개로 개괄한 大門 아래 959문의 각 병증문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각 병증문별로 간단한 이론과 처방이 나열식으로 편제되어 있고 마지막에 침구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병증문은 六淫질환과 外形질환이 모여 있는 것을 제외하곤 당송이래 질환증상별로 나열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정연하지 못한 방서의 체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향약집성방』이 모본인 『鄉藥濟生集成方』의 편제를 중심으로 증보하면서 내용을 확충하고 鄉藥의 考正에 주력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權探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更取鄉藥方, 編會諸書, 搜檢無遺, 分類增添, 歲餘而訖. 於是, 舊證三百三十八, 而今爲九百五十九; 舊方二千八百三, 而今爲一萬七百六. 且附以鍼灸法一千四百七十六條、鄉藥本草及炮製法, 合爲八十五卷.....”⁸⁾

6) 총론문 제외, 부인문과 소아문은 세목 분류.

7) 안상우, 김남일. 「의방유취 총론의 체제와 인용방식 분석」. 경희한의대논문집, 1999:22/1. 참조.

중간본 崔鳴吉의 跋文에 나타나는 다음의 문장을 보면 『향약집성방』 편찬시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좀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世宗大王, 始命醫官, 考正藥名, 撰輯方書, 名曰鄉藥集成方.”

이에 비하여 불과 10여 년의 차이지만 『의방유취』에서는 각 병증문이 오장육부, 육음, 외형, 질환증상의 순으로 게재되어 있어 직접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의보감』의 수록순서와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다.

『동의보감』의 편제는 내용별로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의 5편으로 대분하고 각 편안에 병증 각문을 분별 배치시켜 놓았다. 각 문은 총론, 처방, 단방, 침구 등 치료법의 순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각 문의 총론은 주요 사항을 주제별로 모아 두고 주제를 제목으로 擧出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동의보감』의 목록 방식은 大綱과 細目을 나누어 층차적 구조로 편성하는 이른바 ‘綱目體’를 따르고 있으며, 『의방유취』와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구성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의방유취』가 문별 세목을 배치한데 비하여, 권1의 총목에 이어 각 편별 세부목록을 연계하고 있다는 점만 다르다.⁹⁾ 이것은 전체 분량과 관계가 있으며, 총목과 세목을 연달아 찾아 본문을 곧바로 찾아보도록 배려되어 있다. 목록만 해도 2권의 분량이 할애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편제구성에 신중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독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킨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대분된 5편의 내용을 재고해 보면 기본 방서에서 무질서하게 채택하던 병증목이 일단 내경, 외형, 잡병으로 삼대분된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기존의 三因說에 의한 질병 분류가 좀 더 가시적이고 명확한 치료자 중심의 분류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장육부를 비롯한 氣機失常으로 초래되는 전신증상(內景)과 국소질환증상(外形), 그리고 복합원인으로 인한 질환증상이나 기타 증상(雜病)으로 삼분할 수 있다.

탕액과 침구는 질병분류와는 별개로 대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방용약이 주 처치방법으로 자리잡고 본초방과 침구가 별개의 처치법으로 정착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향약집성방』에서 보이는 본초처방 위주의 편배방식과 『의방유취』와

8) 한성도서주식회사, 신식연환자 중간본, 1942.

9) 目錄의 체제와 수록방식은 張燦理. 『中醫古籍文獻學』. 北京:人民衛生, 1998, p.240 참조.

같은 종합방서의 성격을 절충하고 침구학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동의보감』 서문에 보이는 편찬 초기의 ‘設局撰集, 略成肯綮’라는 말과 뒤에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당시 편제 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該括古今, 析衷羣言, 探本窮源, 挈綱提要, 詳而不至於蔓, 約而無所不包, 始自內景外形, 分爲雜病, 諸方以至脈訣症論、藥性治法、攝養要義、鍼石諸規,.....”

아울러 당시로서도 이러한 분류체계가 종전에 보지 못했던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체제로 상당한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통해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蓋不必遠稽古籍, 近搜旁門, 惟當按類尋方, 層見疊出, 對證投劑, 如符左契, 信醫家之寶鑑, 濟世之良法也. 是皆先王指授之妙筭,.....”¹⁰⁾

이러한 『동의보감』의 편제는 『향약집성방』을 비롯한 本草方書의 편제방식과 『의방유취』와 같은 醫經方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체제이며, 세부 내용에 다시 단방과 침구를 결부시킴으로써 민간향약 경험방서와 침구, 특이요법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편제 구성상의 기본원칙은 집례에서 극명하게 표출된다.

“今此書, 先以內景精氣神藏府爲內篇, 次取外境頭面手足筋脈骨肉爲外篇, 又採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諸病之證, 列爲雜篇, 末著湯液鍼灸, 以盡其變, 使病人, 開卷目擊, 則虛實輕重, 吉凶死生之兆, 明若水鏡, 庶無妄治夭折之患矣.”¹¹⁾

크게 보아 『동의보감』의 편제는 기존의 병증문을 내경, 외형, 잡병으로 삼분하고 각 병증문을 이론, 증상, 진단, 치법, 처방, 침구, 단방에 이르기까지 세분하여 요약함으로써 매우 정연하게 정리된 효과를 얻고 있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 및 『동의보감』의 편제를 층차적으로 대비해 보자.

참고표 1. 조선 3대 의서의 편제 대비

10) 이상 2조 李廷龜의 「東醫寶鑑序」.

11) 內景篇, 卷之一, 集例.

鍼灸日錄					
：				：---	이론
향약집성방	분편: 대문(47문)-병증문(959)-----				치방
：				：	침구법
鄉藥本草					
	총문			：---	理論
：				：---	方藥
의방유취	분편: 대문(91문) 병증문(169)				食治
				：	禁忌
				：---	鍼灸
				：---	導引
				：	이론(脈訣症論)
	：	內景(26)	：	：	처방
	：---	外形(26)----	：	：---	服餌
동의보감	분편: ----	雜病(38)----	：	병증문(108문)	----
	：	湯液(17)----	：	：	禁忌
	：	鍼灸(1) ----	：	：	導引
				：	單方
				：	鍼灸

위의 비교로 보아 『동의보감』 편목 안에서 각 병증문은 『의방유취』의 기본 골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세부 내용이 집약되어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169문→108문) 부연하자면 『의방유취』는 각 병증문별로 역대 의서가 총 망라되어 대조 취합되어 있다면, 『동의보감』에서는 이러한 종합정보를 활용하여 가장 주요한 구절만 취사선택하여 선별 수용함으로써 精緻한 문구만을 수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²⁾ 이에 따라 『의

12) 『의방유취』가 간행된 지 오래지 않아 방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성종조 許琮에 의해 편찬된 『醫門精要』가 그 실례로 87門, 50권으로 압축되어,

방유취』는 종합정보원으로서의 가치, 보존적 차원의 가치를 지닌 열람기능의 의서라고 한다면 『동의보감』은 필수정보로서의 가치, 활용적 차원의 가치를 지닌 독서기능의 의서라고 말할 수 있다.

2. 『東醫寶鑑』 5대편과 ‘類聚’ 인용구 분석

그러면 이제 『향약집성방』, 『의방유취』로부터 『동의보감』에 이르러 의학의 내용이 5편으로 대분되는 과정과 의미를 되짚어 보기로 하자. 고찰 방법으로 5대편에 해당하는 병증목을 찾아 상호대조해 보고 내용상 실제 반영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동의보감』 본문 안의 ‘類聚’가 직접 인용된 문구를 조사하여 대비시킴으로써 분석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보조적으로 인용서의 변화나 기타 정황증거를 보충하여 분석하였다.

1) 內景篇

『동의보감』의 가장 독특한 특성이자 본편의 첫 머리에 등장하는 내경편은 신형, 정, 기, 신으로 시작하여 오장육부, 대소변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동의보감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존의 연구는 주로 이 부분의 도가적 색채나 양생론의 예방의학적 특색에 초점을 두어 왔다.

초기 『향약집성방』에서는 처음부터 풍, 한, 열로 이어지는 육음질환이 시작되어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흔적을 찾는다면 소아과 다음에 補遺로 실려 있는 神仙方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가적 생리론이나 양생설의 내용보다는 『救荒撮要』에서 보듯이 ‘救荒’ 혹은 ‘服餌’법의 측면으로 변천된 것으로 보인다.¹³⁾

『의방유취』에서는 우선 의학개설을 다루고 있는 총론에 이어 곧바로 9권 분량의 오장문(권4-12)이 연재되어 있고 7권 분량의 養性門(권199-205)이 들어 있다. 내경편2의 혈, 몽, 성음, 진액, 담음문과 내경편4의 대소변문을 제하고서라도 오장과 양성문의 내용자체로도 방대한 분량에 달한다. 또 『의방유취』 引用諸書에서 이미 『修真

『동의보감』으로의 이행과정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실전되어 내용을 알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1998.

I. 의방유취의 서지학적 연구를 참조.

13) 『향약집성방』 神仙方의 내용은 『聖惠方』을 위주로 집필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동의보감』 잡병편 雜方に 수록된 내용은 ‘千金’, ‘本草’ 등을 위주로 재편되어 있으며, ‘類聚’가 4조 인용되어 있어 상관성이 높다.

秘訣』, 『延壽書』, 『寶丹要訣』, 『金丹大成』과 같은 도가계열의 서적이 주요 인거서로 채택되어 있다.

이로 보아 『동의보감』 내경편에 도가의학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미 오장문과 양성문을 대거 편입시키고 각 병증문마다 식치와 도인조를 편배한 『의방유취』에서 그 맥락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점은 集例에서 도가의 精氣神 三要와 淸淨修養이 의학의 근본으로 강하게 피력¹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歷代醫方에는 이들 도가 계열의 專著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내경편의 인용서 또한 도가서가 절대 다수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의학의 淵源을 상고하고 주요 참고문헌을 수록한 이 역대의방에 의방유취에서 보이는 도가계열의 의학서조차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마도 기존 연구에서 강조한 『동의보감』의 도가적 색채 혹은 도가의학설의 수용은 오히려 상당 부분 『의방유취』에 대해서 운위되어야 하며, 『동의보감』에 이르러서는 도가저작 중 실용의학적 측면의 내용이 이미 의학의 일부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¹⁵⁾ 실제 인용문에 있어서도 총171조의 인용조문중 이 곳 내경편에서 26조가 인용되었는데 외형, 잡병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대변(11조), 소변(9조) 외에는 기, 풍, 진액, 심장, 신장, 충문에서 각 1조문씩만 검색되었다.

2) 外形篇

국소질환증상 위주로 편제한 외형편은 가장 분류가 용이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것은 일단 가시적인 질병증상과 외부형태에 따른 분류이기에 그렇겠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선대 의서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고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원서의 게재순서에 따라 간략한 방식으로 대비해 보자

향약집성방 : 頭, 眼, 耳, 鼻, 口舌, 齒牙, 咽喉

의방유취 : 眼, 齒, 咽喉, 口舌, 耳, 鼻, 頭面, 毛髮, 身體, 四肢

동의보감 : 頭, 面, 眼, 耳, 鼻, 口舌, 牙齒, 咽喉, 頸項, 背, 胸, 乳, 腹, 臍,

14) “.....人身內有五藏六府, 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 以成其形, 而精氣神, 又爲藏府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 皆謂此也. 黃庭經有內景之文, 醫書亦有內外境象之圖, 道家以淸靜修養爲本, 醫門以藥餌鍼灸爲治, 是道得其精, 醫得其粗也..”

15) 도교의학의 내용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있으며, 하출적여의 다음과 같은 항목 분류가 가장 명료해 보인다. 辟穀, 服餌, 調息, 導引, 房中(吉元昭治 저, 都珖淳 역. 『도교와 불노장수의학』. 서울: 열린책들, 1992, p.44에서 재인용.)

腰, 脇, 皮, 肉, 脈, 筋, 骨, 手, 足, 毛髮, 前陰, 後陰

일견해 보기에선 선대 두 의서의 외형문의 분류는 소략할 뿐더러 순차적이지 못하다. 이에 비해 『동의보감』은 상부→하부, 구간→사지, 외부→내부의 차례로 순차적으로 배열하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의보감』 외형편의 분류편제에 위의 두 의서는 크게 참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의보감』 내 ‘유취’ 직접 인용구를 조사한 결과로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총 171조의 유취 인용구 중 72조문이 외형편에서 인용되어 있다. 특히 병증 각문으로 나누어 볼 때 32조의 안문과 14조의 인후문이 다빈도 1, 2위를 점하고 있다. 또 외형편의 26문 중 14문에서 유취가 검색되어 비교적 골고루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雜病篇

『동의보감』 잡병편은 크게 보아 육음, 내상, 제질환, 부인, 소아로 구성되어 있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는 부인, 소아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것을 제외하곤 이들 병증각문이 일관성 없이 흩어져 산재하여 있다. 다만 『동의보감』 잡병편1은 天地運氣, 審病, 辨證, 診脈, 用藥, 吐, 汗, 下로 구성되어 진단, 용약, 치법의 대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기초이론에 대한 개설 부분은 『향약집성방』에 보이지 않으며 『의방유취』에서는 3권 분량의 총론문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또 『향약집성방』에서 부인, 소아의 각문이 다른 문과 동렬로 배열한데 반해 『의방유취』와 『동의보감』의 부인, 소아는 別門으로 처리하여 總論과 小門을 따로 구성하고 있다.

『의방유취』와 『향약집성방』의 부인문은 다소 세분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부인과학 교과서로 통용되던 宋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의 분류법을 따르고 있다. 즉, 調經, 衆疾, 求嗣, 胎教, 妊娠, 坐月, 産難, 産後의 8門이다.¹⁶⁾

「新編婦人大全良方綱目」

調經門 凡醫婦人, 先須調經, 故以爲初.

衆疾門 經脈不調, 衆疾生焉, 故以次之.

求嗣門 衆疾既無, 須知求嗣, 故以次之.

16) 宋 陳自明 撰. 『婦人大全良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 胎教門 求嗣已明, 須知胎教, 故以次之.
- 妊娠門 胎教已明, 須知妊娠疾病, 故以次之.
- 坐月門 妊娠疾病已明, 須知坐月, 故以次之.
- 產難門 坐月已明, 須知產難, 故以次之.
- 產後門 產難已明, 須知產後疾病, 故以次之.

이에 비해 『동의보감』에서는 월경질환을 내경편 胞門 아래 수록하였고 부인문에서는 곧바로 求嗣로부터 시작하여 임신을 전제로 한 제반 질환 증상만을 부인문에서 취급하여 범주가 달라져 있다.¹⁷⁾

또 하나 『동의보감』 편찬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의방유취』 초판 후 세조대에 진행된 교정작업을 전후로 『창진집』, 『구급방』 등 전문분과의 방역서가 출판되는데, 이것은 물론 『의방유취』의 해당 병증문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성을 심화시켜 편찬된다.¹⁸⁾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동의보감』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허준이 전후에 지은 『언해두창집요』, 『언해구급방』이 바로 그 예이다. 특히 소아 두창은 거의 그대로 떼어내 재배열한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결정적인 모본이 되었다.

의방유취 권163 - 165 小兒 疹痘門 세조3년(1457) 임원준 찬 **창진집** 3권

동의보감 잡병편 소아문 痘瘡 선조34년(1601) 허준 찬 **언해두창집요**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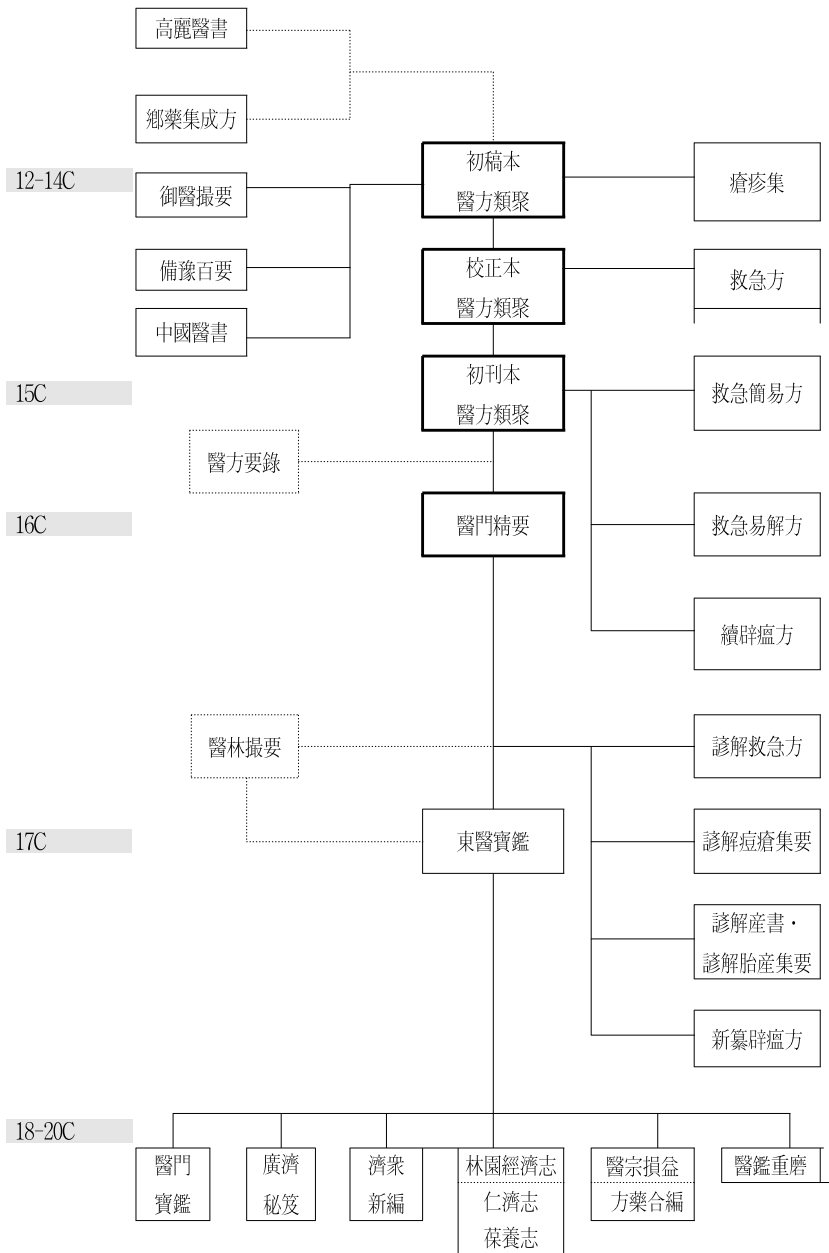
이렇듯 종합 의서의 편찬과 전문의서의 되먹임 관계는 『의방유취』와 『동의보감』의 편찬과정을 통해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략도를 그려볼 수 있다.¹⁹⁾

17) 발표 후 비슷한 견해가 이미 지적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동원, 김남일, 여인석. 『한 권으로 읽는 동의보감』. 서울: 들녘, 1998, 참조.

18) 안상우. 『의방유취』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2000.

19) 도표는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1998, p.65 수정 보완한 것.

참고표 2. 의방유취의 전승계통도



이들 몇 가지 특성과 아울러 잡병편에도 외형편에 이어 유취 인용구 68조가 다량

인용된 것으로 보아 체제와 내용면에서 많은 부분 『의방유취』가 참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傷寒十六名, 浮腫形證, 消渴形證 등 질병의 분류체계를 정하는 대목에서 『의방유취』가 인용되고 있어 제반 질환의 병증정의, 진단표준 및 분류체계에 『의방유취』의 방대한 지식정보가 유용하게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4) 湯液篇

『동의보감』 탕액편의 기본적인 체제는 기초적인 본초이론에 해당하는 湯液序例와 본초 각론으로 구성된 점에서는 『향약집성방』의 鄉藥本草(총론과 각론으로 대분)의 구성과 다를 바 없으며 독특한 체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총론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보충되었고 본초분류가 달라져 있다.²⁰⁾ 『의방유취』는 蟲部에 단 2조만이 인용되어 크게 참조되지 못 했다.

그러나 탕액편에서 주목할 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향약명의 병기를 꼽을 수 있으며, 또 하나 ‘俗方’으로 표기된 자국산 약재의 변증과 殖生, 고유의약경험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차후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부분이지만 『鄉藥救急方』의 方中鄉藥目草部の 이두, 속명표기, 『향약집성방』의 향약본초에서 보이는 향약정신을 계승하고 조선 개국초 이래 꾸준히 지속된 자국산 향약재의 개발 및 이의 누적된 경험의 산물로 인식되어야 한다.²¹⁾ 따라서 이 부분은 편제비교나 인용상황에 앞서 ‘東醫’라고 자칭하는 자국의학으로서의 자부심이 담겨진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鍼灸篇

『향약집성방』에서는 권두에 鍼灸目錄이 실려 있고 병증각문의 끝에 침구법이 실려 있다. 그러나 『資生經』이 출전으로 되어 있는 침구목록은 12경락 正經穴의 定穴法과 간단한 효능만이 개재된 경혈목록이어서 매우 빈약한 느낌을 준다. 또 병증각문의 침구법 역시 방서에 실려 있는 몇 조의 처치법을 소개하는 정도여서 본격적인 침구편이라기보다는 용약치료의 부가처치법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의방유취』의 경우, 각 문의 주요 편목으로 들어 있어 『향약집성방』에 비하여 분량과 비중이 훨씬 높아진 감이 있으나 체제면에서는 크게 진전된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동의보감』 침구편에는 3조의 유취 인용구가 실려 있는데, 인용빈도로 보아서는

20) 『향약집성방』의 본초분류는 기본적으로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의 체제를 차용하고 있으나, 『동의보감』 탕액편의 차서는 이에 비해 많이 개변되어 있다.

21) 일본에서도 『東醫寶鑑湯液類和名』, 『東醫寶鑑湯液篇藥名韓稱』, 『東醫寶鑑湯液篇諺字和解』, 『朝鮮藥名解』 등이 잇달아 나온 것으로 보아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상 크게 참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용서에 있어서 ‘靈樞, 明堂灸經, 鍼經, 鍼灸經, 銅人經, 資生經, 子午流注’ 등 당시 교과서적인 침구경전류가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鍼經指南, 玉龍歌, 十四經發揮, 鍼灸廣愛書括’²²⁾ 등 침구전문서가 취합되어 있어 침구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 역대의방의 침구관련 전저를 대조해 보면 위의 기본서 외에 달리 크게 보완된 서적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후대 방서의 치료편에서 발췌한 침구법 이외엔 내용면에서 『의방유취』에 비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 침구편의 별도 구성은 탕액편과 함께 『동의보감』의 편제상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며, 본초와 침구 분야의 비중이 매우 증대되었음을 반영한다. 병증 각문의 單方과 탕액편, 병증 각문의 침구법과 침구편은 임상 각론과 기초이론 부분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기묘하게 링크되어 있다. 李廷龜의 서문에 이른바 ‘按類尋方, 層見疊出’이 『동의보감』 편제 구성상의 이러한 복층구조의 설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 조선 중기 침의들이 대거 군왕의 환후에 입진 시킴하는 일이 잦았으며, 許任 같은 침구의 명의를 등장하여 독자적인 『鍼灸經驗方』이 간행되고, 드디어는 孝宗2년 내의원과 별도로 鍼醫가 增置되기에 이른다.²³⁾ 이러한 정황과 본 침구편의 별편 구성은 동일한 의미 맥락 선상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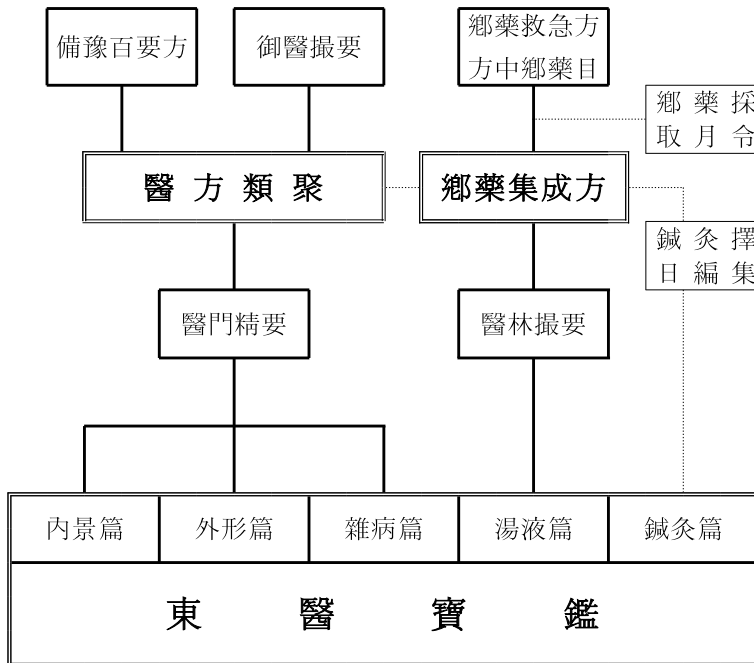
이상 『동의보감』의 5대편을 중심으로 조선 3대 의서를 비롯한 주요 저작간의 상호영향성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참고표 3. 조선 3대의서의 계통도

22) 陳會 원저의 『鍼灸廣愛書』는 朱權의 명으로 劉瑾에 의해 『神應經』으로 개편된다.

이 책은 韓繼禧가 새로 편찬한 『신응경』이 나오기 전에 사용된 母本으로 여겨진다.

23) 조선침구학 발전에 있어서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진 이 두 가지 침구서는 이론과 임상면에서 내외를 이루는 주요 서적으로 청대에 이를 도용하여 합편 발간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위의 표에서 실선은 직접적인 영향, 점선은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의림촬요』는 鄭敬先 『향약방』을 모본으로 교정증보했다는 기록과 고유 의서의 인용이 많은 점 및 민간전승 단방이 다수 채록되었고 시기적으로 『동의보감』 편찬 직전에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향약집성방』과 『동의보감』 탕액편의 중간 연계선상에 놓인다고 판단하였다.

결 어

『향약집성방』, 『의방유취』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의학의 성취가 『동의보감』의 편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동의보감』에서 이룩한 새로운 학술적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개괄해 보기 위하여 조선전기에 간행된 두 가지 대형 의서와 『동의보감』의 편제를 비교하여 체제구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을 수 있었다.

『동의보감』의 내경, 외형, 잡병의 3분 구조와 탕액, 침구편의 5대편은 이전의 역대 의서에서는 유래가 없던 독창적인 것으로 『의방유취』와 『향약집성방』의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이를 효과적으로 총괄하여 집약시키는 과정에서 고안된 독특한 분류체제이다.

『동의보감』 5대편을 중심으로 해당 병증 각문을 비교하고 『동의보감』내에서 유취 인용결과를 부합시켜 분석해 본 결과, 내경, 외형, 잡병 3편의 병증 각목은 『의방유취』의 세분된 질병분류가 재편된 것이며 실제 인용도 역시 높은 편이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경편의 경우, 『의방유취』의 오장문, 양성문으로부터, 외형편의 경우, 안, 인후문 등의 실제 내용의 인용빈도, 잡병편의 경우, 질병분류 체계와 인용도에서 영향성이 인정된다.

별편에 해당되는 탕액편과 침구편은 각기 본초, 침구 분야의 기초이론편에 해당하며, 병증 각문에 별도로 단방과 침구법이 수록되어 상호연계하여 볼 수 있도록 복층 구조로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다. 탕액편은 『향약구급방』의 方中鄉藥目, 『향약집성방』의 鄉藥本草의 맥락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며, 침구편은 『의방유취』 편찬의 누적된 경험지식과 의학 내에서의 증대된 침구학의 중요성이 반영된 부분으로 평가되며, 이후 조선 침구학의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